

May 08 성령을 존중하기

• 요한복음 14:26-27

예수님이 승천하신 후,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. 성령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요,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요, 진리의 영이십니다(로 8:11; 고전 12:3; 요일 4:2). 성령은 보혜사(지킬 保, 은혜 惠, 스승 師)로서 위로자요 돕는 이요 변호사요 상담자가 되십니다.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, 예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(계 3:20).

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?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(요 14:26).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,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성령을 존중하며 인도하심을 따를 때,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(갈 5:22-23). 성령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전문성과 유용성과 효율성에 사로잡혀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? 주인 자리를 내드리지 못한다면, 예수님을 ‘주님’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.

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? 성령과 친밀하지 않으면 오해나 섭섭함이 생깁니다.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성령은 우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(요 16:8). 이는 살리고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(요 14:27).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(요 16:13). 진리를 알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(요 8:32). 성령을 구하십시오.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.

나는 성령을 존중하고
있습니까?

- ①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드렸습니까?
- ② 성령의 책망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?